2015학년도 6월 국어B형 34~38번

문제부분만 워드파일로 따로 올립니다.

34번

문제발문 : [A]의 서술상특징 -> [A]부분만 봐도 된다는 뜻이다.

1번 : 마루청, 장독대, 장다리꽃 등이 서술되긴하지만 공간적 배경을 서술한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며, 주제를 암시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.

2번 : 장독대, 장다리꽃, 마루청 등이 열거되지만, 성격을 드러낼 뿐 복잡한 심리와는 관련없다.

3번 : ‘나’라는 서술자의 논평이 있으나 성격변화는 없다.

4번 : 사물들(장독대,장대리꽃, 마루청)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, 그에 대한 ‘나’의 논평이 존재하며, 이를 통해 건우 어머니의 성격을 드러낸다 -> 정답

5번 : 과거상황은 제시되지않는다.

35번

1번 : ‘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’ 에서 유추가능하다.

2번 : 모자의 불화는 본문에 나와있지않다 -> 정답

3번 : ‘사과 궤짝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’에서 유추가능하다.

4번 : 본문 하단의 <섬 얘기>본문은 정치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.

5번 : ‘선조 때부터 둑을 맨들고 물과 싸워가며’에서 유추가능하다.

36번

문제발문 :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, 고려한 내용으로~ => 이번 시험의 작문 9번문제와 유사하다. 글을 각색할 때 고려하여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달라는 의미이다. 즉, 해당 글(여기서는 <보기>)에, 선지의 글쓰기방법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.

1번 : ‘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’, ‘E.L.S’에서 확인가능하다.

2번 : ‘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 조사사업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’에서 확인가능하다.

3번 : ‘내일은 결판을 낼 끼라고’에서 확인가능하다.

4번 : 찬동하는 인물은 <보기>에 등장하지 않는다 -> 정답

5번 : S#98과 S#99에 모두 ‘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!’라는 대사가 각각 건우 증조부와 건우 할아버지를 통해 나타난다.

37번

문제 발문 : <보기>를 참고하여 : 소설에서의 <보기>문제는 <보기>를 활용하여 지문을 해석하되, <보기>에 근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해석이 아니다. 즉, 본문에서 실제로 <보기>의 내용이 반영된 것만 참이므로, 본문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.

1번 : 본문에서 ‘문득 내머리 속에도 떠올랐다’, ‘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’ 등은 ‘나’가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.

2번 : ‘나’의 이야기가 건우의 <섬 얘기>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-> (중략) 다음부분에서 ‘조마이섬이야기는 <섬 얘기>에 기막힌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’에서 확인 가능하다.

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 -> 건우의 <섬 얘기>가 실제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선지 앞부분에서 판단했으므로, 가능한 해석이다.

3번 :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<섬 얘기>에 원천 -> (중략) 다음부분에서 ‘조마이섬이야기는 <섬 얘기>에 기막힌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’에서 확인 가능하다.

‘나’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음 -> <보기>에는 분명 저항적 주체의 모습이 이 소설에 나온다고 서술되어있으나, 본문에서는 건우가 저항하는 모습은 찾을 수 가 없다 -> 정답

4번 : ‘바’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일화를 다루는 것 -> 앞에서는 건우 어머니의 이야기를, 뒤에서는 땅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.

부조리한 실상을 증언 -> <섬 얘기>의 정치현실, 그리고 땅 수탈 얘기를 보았을 때, 비판적 어조를 느낄 수 있다.

5번선지 :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것 -> 땅은 ‘선조들로부터’ 이어져온 것이며, 일제와 국회의원들에게 뺏겼다.

권력의 횡포를 비판 -> 소설의 핵심적인 부분이다.

38번

1번 : 각골통한 – 한이 뼈에 사무침

2번 : 노심초사 – 불안한 모습

3번 : 전전반측 – 잠을 이루지 못함. 주로 걱정 또는 그리움과 관련

4번 : 풍수지탄 – 효도하려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음

5번 : 후회막급 – 후회가 크다.